

두달새 관광객 1만명...황포돛배 잘~나가네

나주 대표 관광상품 자리매김 2척 더 늘려 총 5척 운항 준비

문화예술공연·먹거리 등 연계 다양한 즐길거리 풍성해 인기

영산강 물길을 따라 운항하는 황포돛배가 나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산강 황포돛배로는 현재 '빛가람호'(영산강 황포돛배 1, 2호)와 '왕건호'가 운항중이다. 또 '나주호'가 다음달이면 정식 운항을 시작하며 유람선 '영산강호'는 건조중이다. 그동안 영산강 황포돛배 1, 2호는 고유이름 없이 운항해 왔다. 나주시는 나주와 황포돛배를 널리 알리고 영산강 관광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49%) '빛가람호'로 명명했다.

빛가람 1, 2호와 왕건호, 나주호, 영산강호 등 모두 5척의 배가 누빌 영산포 선착장~다시면 회진 일원 운항 코스를 짰어 보았다.

◇황포돛배 새 이름 달고 동실동실=을 들어 6월 현재까지 영산강 황포돛배 이용자는 '영산포 흥어 축제'와 유채꽃이 만발하던 지난 4월 4000명(2014년 2000명), 5월 5000명(2014년 1300명) 등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대박 행진'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범 운항중인 '나주호'가 다음달이면 정식 운항을 시작하고, 또 건조 중인 '영산강호'가 임시 운항을 준비하고 있어 나주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황포돛배 이용객 증가 상승세에 맞춰 승선보 선착장을 정비하고, 이달 중순부터 매주 주말에 승선보~지석천 두물머리 왕복 5km 구간을 오가는 '나주호'(49인승·24t, 9노트(시속 16km))를 임시운항 하고 있다.

나주호는 목포시가 영산강 뱃길복원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배를 띄웠지만 관광객이 없어 적자를 허덕이다 문을 닫고 최근 나주시에 인계한 배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들과 이주민 등 영산강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사업비 7억원(광복 4억2000만원, 시비 2억8000



올해들어 6월까지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영산강 황포돛배를 이용하는 등 나주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원을 들여 유람선 '영산강호'를 건조 중이다.

영산강호의 건조는 현재 96인승 왕건호가 운항중이지만 7노트(시속 13km)로 속도가 느려 승선보에서 죽산보 아래까지 펼쳐지는 영산강에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에는 소요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영산강호는 110인승, 49t, 13노트(시속 25km), 길이 25m, 폭 5m의 철선으로, 왕건호(97t) 보다 2배 빠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임시운항이 시작될 영산강호는 승선보에서 죽산보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운항할 예정이어서 나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관광 활성화 촉매역할=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등대가 설치된 영산포구 선착장을 출발한 '영산강호'는 승선보 선착장에 도착해 주말이면 3000~4000명씩 찾아오는 승선보 관광객을 태우고 나주대교 선착장에 도착한다.

먹거리와 문화예술공연이 어우러진 나주목사 고을시장의 토요 문화장터는 음악회, 영화상영, 셀프 야외 바비큐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첫 번째 선착장을 지난 관광객은 나주 대교에서 빛가람 대교에 이르는 2km 구간 17ha에 조성된 억

새밭을 만나게 된다.

역새밭은 지난해 시에서 승선보 관광객을 나주로 유입시키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시는 가을 억새길 행사 기간 동안 임시 선착장을 만들 계획이다.

관광객이 찾을 다음 행선지는 먹거리가 있는 영산포구 선착장. 이곳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배가 죽산보를 돌아서 올 때까지 영산포 '흥어의 거리'에서 막걸리 한 사발에 코를 찌르는 잘 삶힌 흥어 안주를 맛볼 수 있다.

영산포구를 지나면 한국천연염색 박물관이 있는 회진 선착장에 도착해 배호 박물관과 천연염색 박물관에서 염색체험을 할 수가 있다.

시는 또 영산강호가 정식 운항을 시작하면 예약을 받아 죽산보에서 통선(通船)을 실시해 관광객이 나주 영산테마파크와 석관정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죽산보에서 통선 체험을 하고 도착한 곳은 나주 영산테마파크와 석관정, 가야산에 양암바위. 가야산 56m 높이의 바위절벽에 위치한 양암바위는 구렁이와 사랑한 처녀의 슬픈 이야기가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곳이다.

시는 경관이 뛰어나고 스토리가 있는 이곳에서 포토타임을 운영하고 영산포 선착길에 양암바위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원화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영산강 물 살리기 행사에 왕건호가 참석자들을 태우고 죽산보에서 통선을 한다. 목포에서 나주호도 통선을 하고 나주로 가져왔다"며 "통선식은 관광객에게 운하가 어떤 개념인지 보여주고 배가 통선갑문을 통과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건호 정제삼 선장은 "2010년부터 키를 잡고 있는데 수확여행단 등 황포돛배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영산강 황포돛배는 나주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 황포돛배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단위로 출발하며, 최소 인원 운항기준은 빛가람호 3인 이상, 나주호 13인 이상, 왕건호 20인 이상이다.

또 4단계로 분류된 요금제를 성인과 경로, 어린이, 청소년을 통합해 2단계로 분류, 운항 거리를 기준으로 구간요금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글·사진 손영철기자 ycsn@】

빛가람도시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5곳 조성키로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비롯해 5곳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시비 25억원 등 총 35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클러스터 8블럭 부지에 300면, 호수공원내에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차장 추가조성과 함께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5월말 현재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4만7000여로, 매일 400~500여대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박은호 부시장 장마철 현장 점검



박은호 나주시 부시장은 지난 23일 수청 재해 위험지구와 평산·정동 배수펌프장, 은사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사진>

박은호 부시장은 "장마에 대비해 재난 위험 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실종예방지침' 조기 정착위해

나주경찰 실무운영 협의회

나주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지난 23일 경찰서 2층 영산마루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 조기 정착을 위한 실무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다중 이용시설인 나주 종합운동장과 국립 나주박물관, 중흥골드 스파&리조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예방 지침'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교육·훈련,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등을 협의했다.

'실종예방 지침'은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측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후 발견되지 못한 경우 즉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김봉운 서장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 중소기업이 친환경 아스팔트 첨가제 개발

연료 소비량·소음 대폭 줄여 국보산업개발 특허 획득

나주지역 한 중소기업이 친환경 도로포장은 물론 소음까지 줄이는 아스팔트 첨가제를 개발, 도로 포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포장 재생산업체인 국보산업개발(주)(대표 강홍식)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개질 첨가제(MRMA)'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

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섰다.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개질 첨가제는 아스콘에 첨가함으로써 일반 아스콘 생산온도인 160도보다 낮은 100~130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아스콘 제조공정보다 연료 소비량이 30%가량 줄어지고,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량 또한 연료 소비에 비례해 감소한다.

연간 아스콘 생산량을 3200만t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스콘 생산온도를 30도 낮춰 생산하면 8만

6400t의 이산화탄소 가스배출량이 감소, 소나무 6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제품개발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친환경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 개발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활용하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3~6dB(데시벨)의 소음감소와 부착력 강화 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 포트 홀, 갈라짐, 요철현상 등 표면파괴와 부분파손 감소와 함께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소, 도로보수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산업개발은 실제로 신기술을 국도 38호선 안중·오성면 도로포장(수원 국도관리사무소)과 국도 37호선 양평 상평교차로·백현교간 도로포장(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 등에 적용, 국토부의 인정을 받아 최근 조달청과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국보산업개발 강홍식 대표는 "새로 개발한 친환경 개질 첨가제는 아스콘을 중온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다 아스콘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저소음·배수성 아스콘 포장, 고강도 아스콘 포장, 페아스콘의 재생 기능을 갖는 재생 개질 아스콘 등 다양한 기능성 포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예술 꿈나무들의 큰가치

60주년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 시상식

일시 2015. 6. 27(토) 오후1시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예술꿈나무들의 발표회! 무료 관람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60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입니다.

주최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문화유산진흥원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